

굴원을 기념할 때, 중국인들은 무엇을 기리는가?

초(楚)나라의 굴원은 ‘미정(美政, 어진 정치)’을 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청렴한 정치와 공정한 법치를 주장하고, 대외적으로는 제(齊)나라와 연합하여 진(秦)나라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후 통치배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원상(沅湘, 지금의 후난성)지역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병이 나라를 지키 듯 자신의 이상을 굳게 지키고 군자의 도를 실천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고결한 인격을 지킴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해이함과 포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굴원은 본인의 이름에 자신이 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이소(離騷)』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정칙(正則)으로, 자를 영균(靈均)이라 하였다. ‘정칙’은 곧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사람의 도리를 지킴을 의미하고, 영균’은 충명, 지혜, 공평, 공정을 의미한다.” 또한 『굴송(橘頌)』에서 굴나무의 독립불천(獨立不遷, 굴 나무가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원 위치에서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의 특성을 인용하여 자신의 인격적 지조를 보여주었다. 그는 아름다운 이상을 위하여 부패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마치 초나라 상공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듯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지만 초나라의 정세는 어찌할 수 없었다.

굴원의 원대한 이상은 영원히 백성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의 문학 작품과 정치적 포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위대함은 시종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우국지심과 강렬한 애국심이다.

굴원의 업적과 작품이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결부되고, 그가 또한 큰 전통 명절의 주요 기념인물로 될 수 있는 것은 굴원의 언행에 조국과 백성, 그리고 조국 문화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민족 정신과 문화의 항구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라에 알아 주는 이가 없거늘, 이 나라를 그리워한들 무엇하랴?(国无人莫我知兮,又何怀乎故都?)”며 그는 “고국을 떠날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결국 떠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애국정신과 조국 문화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단오절이면 중국 각지에서 굴원을 기념한다. 그의 정직함과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이다. 단오절 이야기하기, 시가 낭송, 용주 경기 등 행사를 통하여 대중들이 전통 문화를 익히고 애국심을 키우도록 한다.

현재 중국인들이 굴원을 기념하는 것은 그를 대표로 하는 전통적인 중국 선비들의 죽음도 불사하고 용감히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천문(天問, 우주 탐구)’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이다. 굴원은 장편서사시 『천문』에서 천지 분리, 음양 변화, 일월성신 등 자연현상에서부터 신화 전설 나아가 성인의 지혜, 악인의 흉악함, 국가 흥망성쇠의 역사 이야기 등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우주관,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였다. 기존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대담히 질의하고 대담히 비판하는 그의 탐구정신은 실로 세인을 탐복하게 한다.

중국의 화성 탐사 임무를 ‘텐윈(天問, 천문)’이라 명명한 것은 중국인의 낡은 전통관념에 대한 비판정신과 과학적 진리에 대한 탐구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낡은 관념에 대한 비판이 없이는 새로운 과학사상을 창출하기 어렵다. 『천문』은 세인들에게 전통의 편견과 보수적인 사관에 대하여 대담히 질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비판과 탐구 속에서 이념의 혁신과 과학적 혁신을 도모해야 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굴원’은 하나의 정신적 상징으로서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 구축에서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굴원과 같은 위대한 선현(先賢)이 없었더라면 중국 선비들의 정신적 지주는 필연코 결핍하였을 것이고, 중국 역사 또한 비장미(悲壯美)가 적잖게 결여되었을 것이다.

문화의 전승은 영원하고 굴원의 정신은 길이 전해질 것이다. 전통을 지키되 고집하지 않고, 옛것을 배우되 복고하지는 않는다.(守正不守旧, 尊古不复古) 이것이야말로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인의

충만한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